하루를 시작하며

꼭 적토마가 아니어도 좋다

이 종 실
제주문화원 부원장·수필가·시인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다. 띠의 색과 명칭은 육십갑자를 이루는 천간과 지지, 그리고 오행에 따른다. 말은 십이지의 오(午)가 상징하고, 붉은색은 십간의 병(丙)이 오방색 중 적(赤)에 해당돼 그에 따른 것이다. '병'은 양(陽)과 불(火)의 기운을 띠고 있어서 올해는 여러 면에서 활기가 넘치리라는 덕담이 들린다. 이를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연과 인간의 이치를 따르며 살고 있다.

한편, 여태껏 최고의 명마로는 중국 후한 말의 무장 여포가 탔던 적토마를 꼽는다. '삼국지연의'에는 이 말이 후에 관우를 태우고 전장을 누볐고 주인이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그 뒤를 따른 것으로 그려진다.

말에 관한 얘기들이 여럿 있다. 말은 영리하고 용맹하면서 온순하다. 경계심이 많고 잠도 대부분을 서서 잔다. 건장하고 빨라서 옛날에는 동서양 모두에서 중요한 교통수단과 군수물자로 쓰였다. 그런데도 무서운 밤길 벗으로는 말이 소만 못하다고 들었다. 소는 별걸 봐도 까딱없는데 말은 놀라면 자기가 먼저 달아난다고 했다. 말이 소보다 나은 것들이 있다. 겨울에 얼음이 언 물가나 눈 덮인 풀밭에 데리고 가면, 소는 멍하니 그냥 있는데, 말은 앞발로 얼음을 깨어 물을 먹고 눈을 걷어내어 풀을 뜯었다. 소는 자라면 제 어미도 몰라보는데 말은 평생 형제까지 알아본다는 얘기도 들었다. 말이 속보로 걷는 동작과 가요 '트롯'은 박자가 같은지 영어 표현이 둘 다 트로트(trot)로 같다.

제주도는 말과 인연이 깊다.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운운하는 말도 있었다. 태풍, 가뭄, 홍수 등 삼재가 그치지 않았던 이 척박한 섬이 말이 살기에는 자연조건이 좋았던 것 같다. 원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오래 말을 길렀고 그로 인해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일을 겪기도 했다. 임진왜란 때 나라에 좋은 말들을 바친 헌마공신도 나셨다. 작아도 야무진 토종 조랑말이 유명하고, 영주십경에는 '고수목마'가 있다. 표선면 가시리에는 갑마장이 아직 남아있으며, 마방목지와 승마체험장이 여럿 운영되고 있다. 말은 옛날 농촌에서 소랑 같이 '밭밟기'와 '짐나르기'를 하고 마차를 끌었다.

올해에는 우리 제주가 말의 힘찬 기운을 받아서 좋은 일을 많이 겪었으면 좋겠다. 이 풍진 세상, 혹시 모를 세파도 말의 강인함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회갑을 맞은 병오생 외에, 무오생(누런 말), 경오생(흰말), 임오생(검은 말), 갑오생(푸른 말) 등 다른 말띠들도 같이 달리자. 다 함께 제주 초원의 풍광명미를 이루자. 여기엔 꼭 적토마가 아니어도 좋다. 수려한 말, 평범한 말, 길을 아는 노마(老馬)와 철없는 망아지들까지 다 좋다. 유월에는 이곳의 인재들이 출마하고 선택받을 것이다.

그들도 꼭 적토마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준마같은 꾼들보다 조랑말처럼 평범한 민초들이 하는 역할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설

전국 시도의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고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가 지난 12일 제주에서 열려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개정안은 4·3을 왜곡해 유족과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이 골격이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제출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4·3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5·18특별법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 장치를 도입해 과거사 관련 법률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상봉 의장은 4·3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가 되고 제주가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협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4·3희생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 등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실효적인 법적 근거가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이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제주도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4·3이 단지 제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화와 연대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은 아직도 멀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진지 오래됐지만 4·3 왜곡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국회는 4·3 왜곡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제주 관광객 숫자보다 중요한 건 씀씀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2025년까지 3년 연속 1300만명을 넘었지만 이들의 소비는 눈에 띄게 줄면서 씀씀이를 늘릴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인구 감소에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관광객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소비하느냐가 지역 상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제주도가 BC카드 결제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제주데이터허브 자료에 따르면 국내관광객의 카드이용금액은 2023년 6803억원에서 2024년 5741억원, 2025년 5080억원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중국인 관광객의 이용금액은 2023년 135억원에서 2024년 200억원으로 48.0% 증가했다가 2025년에는 153억원으로 23.3% 감소로 돌아섰다.

관광객 숫자가 늘었지만 소비가 감소한 이유는 관광 트렌드 변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단체에서 개별로, 쇼핑 중심에서 힐링·문화체험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소비 촉진이 당면 과제가 된 것이다. 특히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비중이 절대적인 중국인은 소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MZ 중심의 개별객과 제주 체류시간이 3~4시간에 그치는 크루즈 관광객이 대세인 게 현실이다.

이를 모르지 않는 제주도도 올해 제주관광을 양적 성장에서 체류형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천명했다.

씀씀이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의 여행객을 어떻게 제주로 유치하고, 제주의 강점인 문화체험·웰니스·로컬 미식여행과 외국인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뷰티콘텐츠를 엮은 고부가가치 상품 발굴이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열린마당

제주 손주돌봄수당 신청하세요

김 규 선
서귀포시 공보실 보도팀장

맞벌이 부부로 하루하루 숨 가쁘게 살며 아이 둘을 낳아 키울 때였다. 아침이면 아이를 안고 뛰어가 맡길 곳은 과수원 농사를 짓던 시부모님 댁이었다. 이른 새벽 밭으로 나가시기 전, 아이들 밥부터 챙기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제주 사투리를 배웠고, 브로콜리며 나물이며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 '어른 입맛'이 됐다. 흙을 밟고 자라서인지 정도 많고, 어른 공경할 줄도 안다. 그 시절 조부모님의 돌봄은 우리 가족을 지탱해 준 가장 큰 힘이었다.

이제 제주에서 그 고마움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이 시작됐다. 2026년 1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제주에 거주하며 24개월부터 47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손주가 한 명이면 월 30만원, 두 명이면 45만원, 세 명이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 하나를 돌보고 키우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시간과 수고, 마음을 이제는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고 말하는 정책이 생겼다. 손주를 품에 안고 하루를 보내는 조부모의 손길이 존중받는 제주, 그 따뜻한 변화의 시작을 응원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국제대회 키우랬더니 예산 줄인 서귀포시

트랜스제주 대회 예산 감액

○…서귀포시가 지난해 10월 44개국에서 1800여 명의 외국인이 참가하며 관심을 모았던 '트랜스제주 국제트레일러닝대회' 예산을 지난해보다 줄어든 1억5000만원을 편성해 뒷말이 무성.

이 대회는 해마다 참가자가 늘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언급량이 증가하고, 제주도의회에서도 외국인들에게 제주의 매력을 알릴 수 있게 운영 내실화를 주문하면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예산을 2억원으로 전년보다 5000만원 증액했는데 올해는 다시 삭감.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1억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대회가 하반기에 열리는 만큼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문미숙기자

정책 연구, 공무원 수행 확대

○…제주도가 지난해 정책 연구과제 공무원 직접 수행 방식을 도입한 가운데 지난 12일 8개 부서 9개 과제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

이날 연구의 창의성, 내용의 충실성, 향후 정책 활용성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우수 과제로 제6차(2026~2030)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 수립(친환경농업정책과),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노동일자리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건축경관과)이 선정.

제주도는 13일 "법정·비법정 계획과 주요 정책 연구를 외부 용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기획·조사·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 장려하겠다는 계획. 진선희기자

부 고

강태인 아버지 **진주강공 규진(선진인쇄사 사장(대표) · 향년 69세)**께서 서기 2026년 1월 12일 11시 49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6년 1월 14일(수요일)**
▶발 인 : **2026년 1월 15일(목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 **양지공원 → 천왕사**

배우자 손정순
아 들 강태인
딸 강경연
사 위 김성엽

※ 연락처
(배우자) 손정순 010-3691-5585
(아 들) 강태인 010-5075-5777

부 고

하성엽(애월읍 신엄리장, 제주비료 애월·하귀대리점 대표) 아버지 **진주하공 장윤(前 애월농협 조합장, 향년 82세)**께서 서기 2026년 1월 12일 13시 22분경에 별세 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6년 1월 14일(수요일)**
▶발인일시 : **2026년 1월 15일(목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 **하귀농협장례식장 301분향실**
▶장 지 : **광령 가족 묘지**

배우자 김순희
아 들 하성엽 며느리 김경선
경덕
성헌 홍옥순
호 상 하희찬

※ 연락처 : 하성엽 010-9391-1240
하경덕 010-8983-0671
하성헌 010-5033-4499
김경선 010-9838-0671
홍옥순 010-5044-8447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이기주[870215-1******, 제주시 용담로7길 18, 104동 702호(용담이동, 호반써밋제주), 2025년 4월 10일 사망]의 법정상속인 이종덕은 제주지방법원 사건2025느단5709호에서 2026년 1월 8일자로 상속한정승인을 심판 받았으므로 상속재산을 청산하고자 하오니 망 이기주의 채권자와 유증받은자는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2개월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상속재산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월 14일

한정상속인 : 이종덕
채권신고장소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77, 1205호 (신정동, 목동대림아크로텔)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당회사는 2026년 1월 6일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으므로 당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한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월 14일

어업회사법인 제주양식 주식회사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363-26
청산인 양 용 웅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